

## VII. 齒科大學 豫防齒學教育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申 承 澈

구강보건학이라는 학문 중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병을 예방하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분야를 예방치학이라고 명명하고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대나 대학에 따라서 예방치학을 구강위생학이니, 치과위생학이니, 심지어는 예방의학이라는 용어로 교과과정에 설정하기도 하였으나, 구강보건학의 한 분과라는 점에서 예방치학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1. 구강병의 발생요인과 그 작용기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강병을 예방하는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실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구강병을 관리하는 일반적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실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강건강상태를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개인의 구강건강상태를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기초치학과 치료치학간의 연계성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구강보건보조인력을 활용하는 일반 원리와 방법을 실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새로운 예방치학지식과 기술을 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방치학교육에는 구강병을 예방하는 원리와 방법의 이론적 또는 실험적 배경을 교육시키는 기초예방치학교육과, 기초예방치학적 원리와 방법을 개인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시키는 방법을 전수하는 임상예방치학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기초예방치학교육과정에서는 구강생물학 및 치과재료학 등의 기초치학 부분의 많은 협조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임상예방치학 교육 과정에서는 소아치과, 치열교정과, 치주병과, 보철과 등등의 임상각과의 협조와 상호 참여없는 임상예방치학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각 치과대학의 예방치학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치학 부문과의 협조체계 관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방면으로 많은 연구도 이루어지고 기초예방치학교육도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예방치학적인 원리와 방법을 실제로 각 환자에게 실용하는 임상예방치학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0개 치과대학 중에서 임상예방치과실습을 행하고 있는 대학은 한 두군데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이론적으로는 예방치과시술을 많이 알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환자에게 실용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예방치학교육이 되고 말았다. 그 실례로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의 치과임상가들이 진료과정에 있어서 예방치과시술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큰 원인중의 하나가 아직껏 한번도 구강병 예방 처치를 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소홀히하는 시술을 일반 개업 치과임상가들이 먼저 널리 시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우리 나라에서 구강병 예방처치가 치과의사들에게도 외면당해 왔었고, 자기 자신이 시행하지도 않을 구강병예방법을 환자에게 굳이 설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환자들의 구강병예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예방치학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 대학에 따라서 3~5학점으로 2~3학기에 걸쳐 수업토록 되어있다. 이 과목은 과거에 많은분들이 맡아서 많은 학문적 토대를 이루어 놓았다. 그러나 구강보건학의 한 분과인 예방치학과

육이 혹시나 그동안 학문적 전공성이 약화되고 자  
 못 치과상식 수준에서 이야기 되지 않았나 하는 우  
 려로 조심스럽게 반성되기도 한다. 물론 구강보건  
 학이라는 학문이 그 추구하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  
 하다 보니까 그 깊이에 있어서 연구를 깊히 다 하  
 지 못하고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방치  
 학도 어디까지나 대학에서 학문의 한 분과로 연구  
 교육되어야 할 전문분야의 학문이며, 특수학문으로  
 서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될 줄 안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현재 치과대학들에  
 따라서는 예방치학 및 실습이 2학년 또는 3학년  
 과정에 들어있고 심지어 1학년 과정에 들어 있는  
 대학도 있다. 예방치학적인 이론과 실습이 어느정  
 도 학년에 적합할 것인가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많  
 은 이견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구강병을 예방하  
 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 만큼, 구강의 해  
 부, 조직 및 생리를 알고난 후 구강병이 무엇인지  
 는 이해한 연후에 그 치료와 예방법을 교수해야만  
 차폐가 맞을 것 같다. 그러한 논리에서 보면 아직  
 구강상태도 잘 모르는 1학년 과정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한 구강병리학이 끝난 후에 치료치  
 학이 교수 될 단계나 그 이후에 강의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치학이 기초치학이  
 라는 그릇된 선입관 아래 1학년이나 2학년과정에  
 주로 배정해 놓으므로써 예방치학교육의 혼란을 초  
 래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3학년이나 4학년의  
 임상실습과정이나 임상치과강의에 임상예방치학 이  
 라는 강좌는 반드시 개설토록하여 저학년에서 배운  
 이론 및 실기를 고학년에서 직접 환자에게 응용토록  
 다른 치료치학분야와의 유기적인 관계 및 구강병 예방  
 업무의 중요성을 계속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과의사국가고시는 치과대학교육의 방  
 향을 정하는 안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예방치학  
 교육도 치과의사국가고시 구강보건학 과목에서 가  
 능한 장차 치과의사로서 치료치과업무와 예방치과  
 업무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도록 배양된 능력을  
 알아보는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방향의 문제를 많  
 이 출제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방치학이 포함되어 있는 구강보건학  
 배점도 기간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과목에 대한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병의 예  
 방과 진단관리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는 현대에 와

서는 국가시험과목의 배점에 있어서도 최고수준으  
 로 강조 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은, 구강병 예방처치를  
 실제 환자에게 행하도록 할 인력은 보조인력인 구  
 강위생사이고, 이러한 구강위생사들의 구강병 예방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할 인력이 바로 치의사이다.  
 그러므로, 선진 외국과같이 치과대학 예방치학 교  
 육과정에 반드시 보조인력활용법에 대한 이론및 실  
 습을 하도록 하여, 장차 구강병 예방처치를 원활히 하  
 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구강진로기술의 발달사를 살펴보면, 치학은 맨  
 먼저 구강동통의 제거로 부터 시작된다. 구강병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이 집  
 중되고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후 고통의 제거 뿐만  
 아니라,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는 소위  
 치과보철학 시대를 거친다. 우리 나라에서도 초창  
 기 구강진로기관을 '이해박는집'으로 표현한 시대  
 였을 것이다. 그 다음이 인공치아보다는 자기 자신  
 의 치아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중요시 되었던 치아  
 보존의 시대였다. 가능한 한 발치를 억제하고 근관  
 치료뿐만아니라 초기치료로서 자기의 구강병을 일  
 찌 치료하고 치아를 보존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  
 려고 하였다. 근래에와서는 구강진강수준을 높힌  
 다는 차원 아래 아예 구강병이 생기지 않도록 구강  
 병을 예방하는데 많은 열성을 다하고 있는게 세계  
 적인 치학계의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치료분야의 치학기술 및 응용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예방치학적인 응용은 거의  
 미미한 상태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물론 다  
 행히도 이제까지 일부 치료치학을 전공하는 과목에  
 서 구강병 예방처치를 몇가지씩 나누어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어서, 겨우 구강병 예방처치의 명맥을  
 이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치료치학이주전  
 공이었고, 예방치과에서 해야할 일을 도와준 정도이었  
 다. 이제 예방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그동안의  
 일을 그분들께 감사하며, 구강병 예방처치에 관한  
 교육을 더이상 치료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께 맡겨  
 수고를 시켜드릴 수는 없다. 이를 하루빨리 해결하  
 기 위해서도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에 임상예방치  
 과를 설치 운영하여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임상예방  
 치과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구강병 예방처치법을  
 고루 갖춘 원만한 치의사를 배출토록 해야 한다.